

정례브리핑

2020.8.21(금) 10:30, 조혜실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30분 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되는 광복 75주년 기념 평화통일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습니다. 오후 3시에는 장관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두 말씀까지 공개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도 내용을 보면 저희 통일부가 남북교류를 검토 중인 '개성 고려인삼'이라는 기업이 대북제재 기업이다, 어제 국정원 발표 내용을 보면.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지금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과 통일부가 교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답변> 그 관련 보도 나왔을 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실은 제재 관련성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부는 그런 개별 기업들, 민간단체들이 물물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위해 제반 조건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또 긴밀히 공유를 하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다시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개성고려인삼이 대북제재 기업 명단 리스트에 있는 것은 맞습니까?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정보위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제재 관련성 등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고, 그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질문>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보위에서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기사로만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해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답변> 따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것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개성고려인삼이라는 기업이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외화별이 업체로 파악한 조성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같은 회사인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

<답변> 계속 같은 질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나왔던 그 건에 대해서 제재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었고, 그곳이 제재 위반 리스트에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

부처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리스트에 '있었다, 없었다'는 확인이 지금 불가능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답변>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보도가 다 나온 사안인데도 그런가요?

<답변> 지금 온브리... 공개 브리핑이잖아요? 예.

<질문> 어제 국정원에서 '북한 위임통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동향이라든가 입장 있으신가요?

<답변> 정보위에서 발표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따로 뭔가 평가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언급해 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북한매체를 통해 밝힌 공식 지위는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입니다. 또, 지난 6월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세 차례의 본인 명의 담화를 발표하는 등 남북,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상세정보,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김정은이 7월 이후 공개 활동이 늘었다, 총 7월에 13회 공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특히 당회의 횟수가 늘었다고 했는데요. 그 13회 활동 중에서 당회의나 현지 지도, 이렇게 좀 구체적인 횟수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기본적으로 저희 북한정보포털에 공개가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그 건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따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장관께서 좀 전에 포럼에서도 ‘작은 결재’ 시작했다는 언급하셨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말고 또 추가로 대북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결정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작은 결재 관련해서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최근에 가장, 8월 6일에 마스크 등에 대해서 반출승인한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1건이 더 있었는데 8월 12일에 방호복 등 1.8억 원 상당 규모의 방역물품 1건에 대한 반출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국제기구와는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1.8억, 1억 8,000만 원 상당.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방호복만이요?

<답변> 방호복 등이고 방호복이 주요 품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TV조선 고 기자님 질문 관련해서 이것을 조금 명확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제재 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제재 리스트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러 사항들은 사실 정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그런 제재위반 기업과 협의를 추진, 제재위반 기업과의 작은 교역을 추진하려고 했던가?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닌 다른 얘기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1억 8,000만 원 상당의 반출 승인 건은 UN의 대북제재, 제재면제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건가요?

<답변> 제재 비해당 품목입니다. 단체명은 단체의 의사를 존중해서 공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민간단체라고 보면 될까요?

<답변> 네.

죄송한데 하나 정정드리겠습니다. 김여정 담화 발표 제가 3차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총 6차례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